

요약

최근 미국 보험회사들은 M&A를 통해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나서고 있음. 보험그룹 AIG는 손해보험에 집중하기 위해 생명보험 및 퇴직보험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며, Metlife와 Cigna는 건강보험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타 사업부문을 매각함.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, 팬데믹으로 촉진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와의 파트너십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됨

- 최근 이루어진 미국 보험회사 M&A의 특징은 비핵심 사업 분리 매각 및 지역 분할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있으며, 그 예로 AIG의 런오프 거래 및 생명보험 사업 매각, Metlife와 Cigna의 건강보험 및 건강관리서비스 집중을 위해 타 사업부분 매각 그리고 영국 Prudential의 미국 내 연금사업 매각을 들 수 있음
- 미국 보험그룹 AIG는 재보험 자회사 Fortitude Group Holdings를 사모펀드 Carlyle Group과 일본 보험회사인 T&D Holdings로 매각하였으며¹⁾, 추가적으로 생명보험 및 퇴직보험 사업 매각을 추진 중임²⁾
 - AIG는 2018년 구조화상품 및 연금저축상품 등과 같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상품의 보험부채(런오프 보험부채)를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자회사 Fortitude Group Holdings를 설립하고 부채를 이전하였으나,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손해보험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함
 - Fortitude Group Holdings 매수자인 사모펀드 Carlyle Group은 2008년부터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을 런오프 시장에 진입하였으며, 일본 보험지주회사 T&D Holdings는 생명보험 포트폴리오를 지역적으로 다각화하기 위해 거래에 참여함
 - 또한 AIG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저금리 심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생명보험 및 퇴직보험 사업 분리를 선언하였음
 - 일각에서는 AIG의 이러한 행보가 코로나19와 산불 및 허리케인 등 대재해 발생에 따라 손해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예상한 전략으로 시가상 적절하다고 평가함
- 2020년 12월 Metlife는 경쟁력이 낮은 미국 내 자동차 및 주택보험 사업을 Zurich Insurance Group의 자회사인 Farmers Group, Inc에 매각하기로 함³⁾

1) WSJ(2019. 11. 25), "AIG to Sell Vast Majority of Fortitude Stake to Carlyle, T&D"

2) WSJ(2020. 10. 26), "American International Group to Divest Life-Insurance Business"

- Metlife는 건강보험사업에 집중하고, Zurich Insurance Group은 미국 내 채널 다각화를 통해 손해보험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음
 - 전통적으로 대리점 채널에 의존해왔던 Farmers는 Metlife의 단체건강보험 채널을 이용하기로 한 매각 조건을 통해 채널 다각화가 가능해졌음
 - Metlife는 Farmers로부터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단체건강보험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

○ 2020년 12월 31일 Cigna는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단체생명보험, 사고 및 장애보험(Disability Insurance)사업을 New York Life에 매각하였음⁴⁾

- New York Life는 이 거래를 통해서 대략 3,000명의 직원 및 9백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단체보험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, 재무건전성이 강화되었다고 밝힘
 - New York Life는 이 거래로 미국 내 단체보험 상위 5위 안에 들게 됨
- Cigna는 2018년 약국 급여 관리 조직인 Express Scripts를 인수한 이후 건강보험사업에 초점을 맞추고, 2019년 8월부터 단체생명보험과 사고 및 장애보험 사업을 매각을 고려하였음
 - Cigna는 단체생명보험과 사고 및 장애보험 사업을 매각 결정 후 기술 혁신 차원에서 2020년 10월 자회사 Evernorth를 설립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,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지역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음

○ 마지막 사례로 2020년 6월 영국 Prudential은 자회사인 미국 생명보험회사 Jackson의 지분 일부를 Athene Holding에 매각하는 동시에 Athene는 Jackson이 보유하고 있는 최소수익보장 지수형연금 276억 달러에 대해 완전 재보험을 제공하기로 함⁵⁾

- 미국에서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하는 Jackson은 지분투자자 재보험거래에 따른 자본확충을 통해 RBC 비율이 80%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Prudential은 Jackson이 개별 기업으로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2021년 상반기 Jackson의 기업공개 후 시차를 두고 나머지 지분을 Athene Holding에 매각할 예정임
 - Jackson은 미국에서 연금사업과 아시아에서 건강 및 생명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으나, 미국 사업 부분의 매각을 통해 Prudential은 아시아 특히 홍콩과 중국에서 건강 및 생명보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

○ 미국 보험회사들의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M&A 추세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, 팬데믹으로 촉진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와의 파트너십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적극적일 것으로 보고 있음⁶⁾

3) WSJ(2020. 12. 11), "MetLife to Sell Car and Home Insurance Unit to Zurich for Nearly \$4 Billion"

4) Cigna(2020. 12. 31), "New York Life Completes Acquisition of Cigna's Group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Business"

5) <https://www.prudentialplc.com/news-and-insights/all-news/news-releases/2020/18-06-2020>

6) Deloitte(2021. 3. 2), "2021 Insurance M&A outlook"